



주인공이 된 ESG

1. 주인공이 된 ESG

- 2020년 4분기 전세계 사회책임투자펀드에는 전분기 대비 88%가 늘어난, 1,523억달러 순유입. 순유입규모의 80%는 유럽, 13.4%는 미국이 차지
- 4분기 사회책임투자펀드는 196개의 신규 상품이 출시되어서, 사회책임투자펀드로 분류되는 펀드는 총 4,153개가 되었음

2. 아시아의 사회책임투자펀드

- 아시아(일본제외)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250억달러. 이 중에서 주식은 132억달러로 전체 펀드의 88% 차지
- 2020년 아시아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크게 성장
- 아시아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낮게 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기업들의 ESG 평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3.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

- 국내 액티브주식펀드에서 환매가 이어지는 중에서도, 사회책임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등이 골고루 관심을 받고 있음
- 사회책임성투자(ESG포함)는 기술적으로나 사회 분위기 상으로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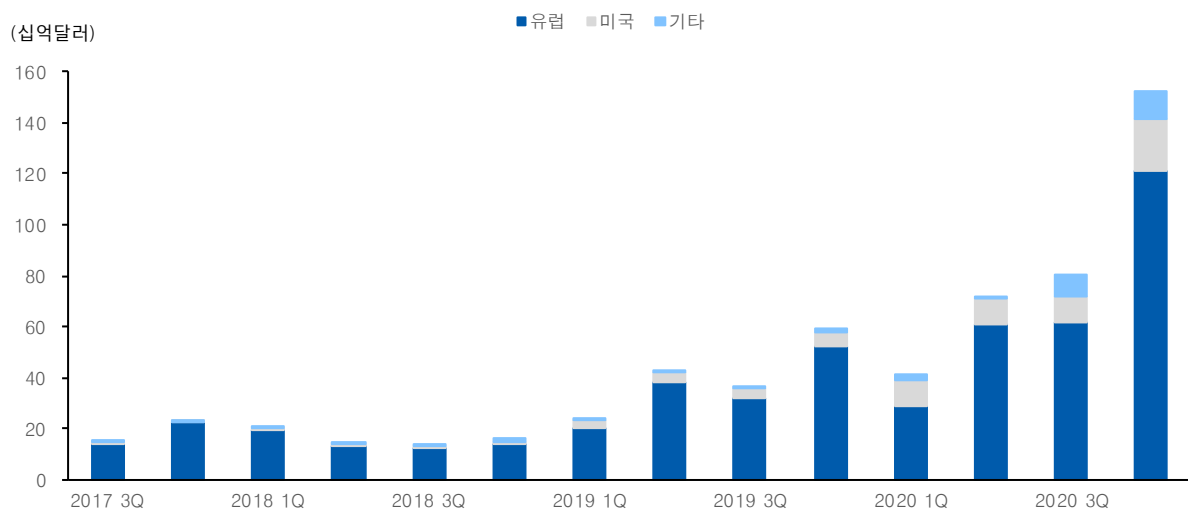
1. 주인공이 된 ESG

2020년은 사회책임투자펀드가 투자자산의 주인공이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절박해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정부 정책으로 힘을 얻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ESG 펀드의 투자 기회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ESG펀드에는 발전 동력이 되고 있다.

2020년 4분기 전세계 사회책임투자펀드에는 전분기 대비 88%가 늘어난, 1,523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순유입규모의 80%는 유럽, 13.4%는 미국이 차지하였다. ESG펀드 자산은 1조 6,52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9%가 증가하였다. 유럽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액티브운용 비중이 높고, 미국 사회책임투자펀드는 ETF 등 패시브 비중이 높다.

4분기 사회책임투자펀드는 196개의 신규 상품이 출시되어서, 사회책임투자펀드로 분류되는 펀드는 총 4,153개가 되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ESG에 대한 관심이 신규 펀드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트1] 2020년 4분기 ESG 펀드는 자금유입규모와 펀드규모 최대치 기록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아시아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아시아(일본제외)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250억달러이다. 이 중에서 주식은 132억달러로 전체 펀드의 88%를 차지한다. 2020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컸으며, 아시아 자금 유입 규모의 60%는 중국이 차지했다.

2020년 한국은 주식 직접투자가 활발해졌으나, 국내 주식 간접투자는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책임투자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전통적으로 사회책임투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투자되어 왔으며, 선진국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보다 ESG 평가를 높게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ESG 평가에서 아시아 기업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GPIF가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의 사회책임투자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이처럼 아시아의 기관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시아 기업들의 ESG 평가도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트2] 아시아(일본제외) 사회책임투자펀드 규모, 4분기에 크게 증가.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크게 성장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펀드

2020년 우리나라 국내주식액티브펀드에서는 5조 9,662억원의 설정액이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스타일펀드인 중소형펀드와 배당주펀드에서는 각각 1.2조원과 1.8조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책임투자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다.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채권형까지 다양한 유형에서 설정액이 증가하였다. 사회책임투자 또는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호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국내액티브주식 유형의 수익률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다. 해외 사회책임투자 펀드도 해외주식유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책임성투자(ESG포함)는 기술적으로나 사회 분위기 상으로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펀드명	유형	순자산	3개월 설정액 순증감	설정일	수익률			
					1개월	6개월	1년	3년
국내액티브주식		210,865	-30,880		4.9	33.9	42.6	19.9
해외주식		365,490	19,531		7.0	22.0	35.4	31.2
우리하이플러스단기우량 ESG 채권	일반채권	4,468	281	2011-01-18	0.2	1.0	2.1	8.7
마이다스책임투자	액티브주식테마	4,459	274	2009-04-21	6.4	33.3	66.5	61.2
NH-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	액티브주식테마	2,573	1,108	2020-09-03	4.9			
KKBSTARESG 사회책임투자	인덱스주식기타	2,377	1,603	2018-02-26	7.5	44.6	53.6	
슈로더글로벌지속가능성장주	글로벌주식	805	544	2020-07-27	3.6	25.3		
신한아름다운 SRI 그린뉴딜	액티브주식테마	745	193	2005-11-16	5.3	39.9	51.4	39.4
미래에셋 TIGERMSCI KOREA ESG 리더스	인덱스주식기타	599	392	2018-02-06	7.3	39.2	49.5	
KBESG 성장리더스	액티브주식일반	507	167	2008-05-15	5.1	40.0	46.2	36.0
한화 ESG 히어로	일반채권	502	500	2020-11-02	0.2			
삼성착한책임투자	액티브주식테마	369	8	2017-08-17	6.6	41.5	52.8	32.7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월 5일 영업일 기준